

광주·전남 대부분 한가위 보름달 본다

11일 밤까지 오락가락 비 추석 당일 13일 대체로 맑아 연휴 기온 평년보다 높을 듯

올해 추석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환한 보름달을 만날 수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위) 등은 "추석 당일인 13일 밤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10일 예보했다. 광주의 한가위 보름달은 13일 오후 6시

35분에 뜬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남중(南中)은 자정이 조금 지난 14일 0시 13분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등근 모습이 아니며, 뜨고 난 뒤 점점 차올라 이를 뒤인 14일 오후 1시33분에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추석 당일 보름달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방향에서 태양의 정 반대까지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천문위는 설명했다. 기상청은 11일 밤까지 광주·전남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12일은 흐리고 구름이 많다가 추석 당일

인 13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은 북쪽의 고기압과 남서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기온은 28~30도 분포를 보여 평년(최저기온 17~21도·최고기온 26~28도)보다 조금 높겠다.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노약자나 어린 이들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해상에서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물결이 전반적으로 낮게 일 것으로 보여 도서지역을 오가는 선박 운행에도 무

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 남해서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남쪽먼바다에서 파도가 1.5~3m로 조금 높게 일 가능성이 있어 도서지역 귀성객은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 외 해상은 0.5~2m다. 14~15일은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1~2m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지만 대체로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추석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교통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전망, 귀성·귀경길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풍 할린 들녘 벼 세우기 구슬땀 10일 나주시 금천면 들녘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지난 주말 닥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을맞이 인문학 강좌

광주 동·북구 수강생 모집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가을을 맞아 풍성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동구는 "다음달까지 '동구 인문대학'에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상생'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전진희 인권인문연구소장의 사회로 편견과 혐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산수문화마당에서 진행된다. '차별의 언어'의 저자 장한업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우리의 다문화 인식, 이대로 괜찮은가?' 강좌를 시작으로, 24일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기' (김예원 장애인전문 변호사), 10월 17일 '여성작가로서의 삶, 여성시인으로서의 삶' (박민정 작가), 10월 22일 '우리도 한 때는 난민이었다' (표명희 작가)가 이어진다. 이번 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북구는 문학 속 음식의 맛을 이야기하는 '백석, 시(詩)와 음식'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다음달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남도향토 음식박물관에서 열린다. 강좌는 '사슴' '통영' '고향' 등을 발표한 백석(1912~1996) 시인의 시(詩)에 담겨있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음식에 대한 인문학적인 맛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승원 소설가의 '문학-밥값하고 살기', 고재중 시인의 '백석 시(詩)와 음식과 선(善)', 안오일 시인의 '백석 시(詩)에 담긴 삶의 맛', 고영서 시인의 '백석 시(詩)와 음식 그리고 사랑' 등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강의는 시낭송·음식체험 등이 어우러진 '시시(詩詩)한 식(食)꺼리 한마당'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수강생은 오는 27일까지 선착순 60명 모집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추석연휴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환경부, 특별관리대책 추진

환경부는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변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 주고 궁급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연휴 때도 운영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하고 고서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 완충재인 흰색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천 보자가 알루미늄 호일·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위생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달뜨기 17:29
해질녘 18:46 달질 03:09

가을비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한때비	23/30	보성	흐리고한때비	21/30
목포	흐림	23/28	순천	흐리고한때비	23/30
여수	흐림	23/29	영광	흐림	23/29
나주	흐리고한때비	21/30	진도	흐림	22/28
완도	흐림	23/29	전주	흐리고한때비	23/29
구례	흐리고한때비	21/30	군산	흐리고한때비	23/29
강진	흐림	22/30	남원	흐리고한때비	21/29
해남	흐림	22/29	흑산도	흐림	22/26
장성	흐리고한때비	22/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동~남동	0.5~1.0
남부 먼바다	남동~남	0.5~1.5	동~남동	0.5~1.5
안바다	남동~남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먼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먼바다(서)	남~남서	1.0~1.5	서~북서	1.0~2.0

◇ 생활지수

위험	☹️
보통	☀️
보통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08	00:38
여수	18:02	12:36
	01:45	07:32
	13:34	20:14

◇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	☀️	☁️	☁️	☁️	☀️	☁️
22/27	21/29	21/29	21/29	20/28	18/27	17/26

전남대, 공예·디자인 교육 사업 대학교 선정

12월까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남대학교가 공예·디자인 교육 대학교 선정됐다. '2019년 대학생 대상 공예·디자인 교육'은 공예와 디자인의 창조적 협업을 도모하고 전통문화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예·디자인 대학에 전공공예 사업 대학교로 선정,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습과정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국적으로는 전남대와 서울대 등 전국 5개 대학이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대학생 대상 공예·디자인 교육'은 공예와 디자인의 창조적 협업을 도모하고 전통문화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예·디자인 대학에 전공공예 사업 대학교로 선정,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습과정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여수해경, 낚시성수기 낚시배 특별 점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여수해양경찰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배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이다. 앞서 11일부터 15일까지는 낚시배 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취지, 안

전 의식, 사전 교육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가을철을 맞아 낚시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적발된 낚시배 안전위반 행위는 총 73건으로, 이중 가을철(9~11월)이 23건(31.5%)을 차지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동부 센트레빌 상가
매매 및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매매 - 6억5000만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 문의. 010-6834-7400

